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월드뷰

WORLDVIEW

02

FEBRUARY · 2015

ISSN 2234-3865

잘 알지도 못하면서

COVER STORY

과학주의를 넘어 상식의 세계로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 René van Woudenberg

SPECIAL COLUMN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
기독교 성직주의,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COLUMN

[서평]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서평] 창조에서 홍수까지



(주) 세상바로보기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한국 교계에서 신학자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박형룡, 박윤선, 한철하 등 뛰어난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신학자들도 교수란 사실만으로 존경받았다. 신학자의 수도 적었으므로 희소가치도 높았다. 교단의 중요한 결정에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결정적이었고, 중요한 집회나 큰 교회에서 신학교수를 강사로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신학교수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학교수들의 운명은 교단 정치가들이 결정하고 이단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데도 신학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 큰 교회 목사로 차출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신학자의 표

지가 되고 말았다. 한국 교회의 신학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교단 정치가들이 좌지우지한다.

“땡 잡는 것이 매”고 한국 교회의 땡은 많은 숫자의 교인과 많은 액수의 헌금이다. 그런데 많은 지식과 심오한 이론은 그런 땡을 잡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아니므로 홀대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학자가 잘 나갈 때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교가 과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르칠 자리가 부족하다. 과잉상태니 신학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학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

신학의 저평가는 모든 지식, 이론, 지성으로 연장되었다. 교회에서 지식인들의 위치는 헌금 많이 하는 기업인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들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한참 못 미친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반지식적이 되어 있고 반지성적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식인들 자신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하기보다는 걸뭇만 들어 만사에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철저히 이원론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전문 지식은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취급한다. 신앙과 교회에 효과적인 비판도 하지 못하고 크게 공헌하지도 않는다.

지식의 저평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비해서 어리석은 것이며 (고전 1:22-25), 당대의 학문을 대변한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속임수나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골 2:8). 2세기 때 교수 터툴리아누스 (Tertullianus)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Credo quia absurdum) 하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물음으로 믿음의 세계에는 지식이 설 자리가 없었다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는 “알기 위해서 믿어라” (crede, ut intelligas) 하였고 안셀무스 (Anselmus)도 “알기 위해서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 하였다. 모두 믿음이 지식에 우선하고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주장을 펼친 바울, 터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가 모두 당대에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는 기독교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칼빈은 23살 때 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서 라틴 저자만 해도 55명을 인용했다 한다. 그들 외에도 기독교는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카이퍼, 바르트 (K. Barth), 틸리히 (P. Tillich), 니버 (R. Niebuhr), 도여베르트 (H. Dooyeweerd), 루이스 (C. S. Lewis) 등 위대한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수없이 배출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그 후 역사에서 과연 기독교가 누렸던 위상을 가질 수 있었으며 심지어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었을까? 거대한 세속 문화의 흐름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집승과 달리 인간의 삶은 좋은 나쁜 지식에 의하여 영위되었고, 현대인의 삶은 거의 대부분 지식이 결정한다. 현대사회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었고, 이런 지식의 형성과 축적에는 기독교가 크게 공헌했다.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가치판단, 세계관, 심지어 지식까지 인간이 개발하고 축적한 지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성경 이해, 신앙생활, 교회사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성경자체는 인간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영향받지 않지만 성경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은 지식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지식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식추구에 필요한 태도다. 모든 거짓, 편견, 편애, 욕망, 감정, 부분적인 것, 일방적인 것, 비논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 자체만을 정확하게 바로 알려 하는 노력은 학문하는 자의 기본자세다. 거기에는 반드시 끊임없는 비판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비록 그런 자세가 진리 발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고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고등종교들 가운데 가장 불신을 받고 있고 세상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자란 반지식적이고 반지성적인 경향이다. 신학도, 지식도 다 무시하고 감정의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화하여 평을 잘 잡는 매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을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학문연구자의 태도로 접근했다더라면 이런 시궁창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는 아니지만 무식한 종교가 결코 아니다. 

2015년

2월호를

발행하며

2015년에는 본지의 편집 방향을 ‘한국 교회에 들어온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살펴본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학적 빈곤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손봉호 대표주장께서 한국 신학의 빈곤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반지식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큰 교회 목사와 교단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식인들의 위치가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지식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과 지식을 무시하고 감정의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화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 교수께서는 한국 교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목사직에 대한 신학의 빈곤을 지적하면서 만인제 사장론과 교회 지체론으로 볼 때 목회자뿐 아니라 크리스천 모두가 제사장이고 성직자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은 교회가 세상의 지도 체제를 모방하면서 세속화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목사의 문자적 의미는 ‘양을 치는 목자’란 뜻이며,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작은 목자들로 성숙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호의 기획기사로는 송인규 교수의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학적 빈곤이 무엇이며 오늘날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한국적 신학의 가능성을 등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서강대 철학과 강영안 교수님의 “교회 안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려고 했으나, 대신 방한한 르네 반바우든베르흐(René van Woudenberg) 교수와 강영안 교수의 대담으로 꾸몄습니다. 르네(René) 교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 소장입니다. 대담의 주제는 과학주의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것을 모두 이른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즉 ‘과학주의’(scientism)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과학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에 얼마나 팽배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현대인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인간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이퍼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 지성인들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양희송 청어람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에 대한 조성돈 실천신학 교수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100만 명에 이르는 이 시대에 과연 이들은 ‘잃은 양인가, 깨어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교회론이 없고 단지 교회성장론만 있다고 하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됨을 상실한 한국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하며, ‘반신앙적 도발’이 아니라 ‘참신앙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조성돈 교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 대한 여러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Contents

WORLDVIEW · FEBRUARY · 2015



COVER STORY

08 커버스토리 과학주의를 넘어 상식의 세계로_르네 반 바우든베르흐(René van Woudenberg)

SPECIAL

20 기획칼럼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_송인규

26 기획칼럼 기독교성직주의,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_김의원

COLUMN

02 대표주간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_손봉호

04 발행인 칼럼 2015년 2월호를 발행하며_김승욱

34 메디컬칼럼 Cure & Care 최초의 감각, 최후의 감각_최현일

38 청년연단 교회에 대한 복종과 저항 사이에 선 청년들_이관형

CULTURE

58 편집# 세상, 부끄럽게 하기

59 유머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_손봉호



표지인물
민바우든베르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BOOK REVIEW

- 40 서평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_조성돈
- 44 서평 창조에서 홍수까지_오성호

NEWS

- 50 퇴임인사 미친 사람이 한국 교회의 미래_조성표
- 56 사무국 뉴스
- 57 월담 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대표주관 손봉호
- 발행인 김승욱
- 편집인 신호영
- 편집위원 강진구, 김정효, 김태황, 박상은, 송인규, 신국원, 우종학, 이승구, 조성돈, 조영길, 조정민
- 교정/교열 김선경
- 사진 신호영
- 편집 김소라
- 디자인 황정희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 교수(René van Woudenberg)

과학주의를 넘어 상식의 세계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Abraham Kuyper Center for Science and Religion) 소장으로서 있는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 교수(René van Woudenberg)가 지난 해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한동대, 고신대, 백석대, 서강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아래 대답은 네덜란드 유학 시절 그와 가깝게 지냈던 강영안 교수가 말아 주었다.

강영안(이하 강) :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이하 René) :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주의’(scientism)에 관한 연구입니다. 과학주의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만이 진정한 앎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과학주의 반대편에 서서 과학주의가 직면한 내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신론적 방법의 합리성,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주의와 관련해서 우연의 문제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급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빠르다느니, 느리다느니, 또는 어떤 것은 좀 더 참에 가깝다느니, 참과는 거리가 멀다느니,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스 리드(Thomas Reid)와 그의 철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리드와 관련해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 : 과학주의에 대한 연구는 템플턴 재단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né : 네,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 등 몇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적인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결정할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 뇌가 이미 결정을 내린다고 결론내리고 싶어 합니다. 자유의지는 곧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실험 결과가 무엇이며 논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증거도 많고 우리 자신이 무



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유롭다는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대신 뇌 연구의 적합성만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를 채택할 때 균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루즈(Michael Ruse)나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같은 진화론을 따르는 철학자나 생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도덕성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학적 탐구 이전에 과학주의가 이들의 연구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이 도덕 실재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reasons)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것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바로 이 장소에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의심을 품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어떤 이유를 부여 하든지간에 거기에는 항상 노출된 설명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증적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모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미 과학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인지심리학적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예들이 종교적 믿음의 참됨에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 다시 요약하자면 과학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네 문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군요. 첫 번째는 자유의지,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이유, 네 번째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설명.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과학주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탐구를 하시는군요. 이른바 '신경신학'(neurotheology)도 다룹니까?

René : 네, '신경신학' 문제도 우리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와 종교적 믿음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의 전체적인 틀은 '과학주의'의 이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념과 사상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그 속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도 수반됩니다.

강: 네 가지 주제는 모두 인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것을 모두 이른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곧 과학주의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과학주의에 매몰된 인간을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René: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철학자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과 상식(common sense)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도덕성은 환상이 아니라 실재이며,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집니다. 과학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들을 거부합니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급진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도덕적 비난이나 법률 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과학적 체계에 대한 오래된 질문은 '과학이 과연 인간과 세계에 대해 연구하고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인가, 아니면 다른 체계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매우 칸트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적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학주의가 대단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는 결국 과학조차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방금 말한 '상식'으로 돌아가 보지요. '상식'(common sense)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듯이 같은 공동체에 사는 타인과 함께 공통으로 공유하는 생각, 태도, 지식입니다. 만일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어떤 것을 믿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과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인간이 공유하는 상식보다 과학을 더 믿음만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직 과학만이 유일한 지식이고 유일한 설명 방식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쉽게 '과학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주의가 하나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겠지요. 물론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좋은 생각, 좋은 상식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주의'에 근거해서 책임을 거부하고 법제도를 없애버린다면 아마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René: 그렇겠지요.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강: 그렇다면 과학주의는 결코 상식이 될 수 없고, 상식이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né: 상식이란 개념은 그리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식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이 행동의 이유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정확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근거조차도 환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겠습니까? 만일 행동의 이유가 환상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획하고, 실험을 설정하고, 이유에 따라 행동하고, 지침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이 네 가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유에 따라 행동합니다. 과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의 범주 또한 우



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진실성이 없는 과학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관성이나 상식, 진실성을 배제해 버리면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도덕성이 환상이라고 한다면 과학계는 사기꾼 집단이 될 것입니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과학 안에서는 도덕적 규칙을 지키고 이유와 근거를 중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고, 도덕 규칙을 지킬 수 있고,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과학 연구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강 : 과학적인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René : 저는 진리를 발견하는 활동이 과학이라 생각합니다. 진리 발견이 과학의 궁극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교수와 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일종의 '잠정성'에 대한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배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목적이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탐구심과 더불어 겸손, 주의, 신중함, 한계 등의 '지적 덕목'(epistemic virtue)을 제대로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과학을 통해 안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분들, 특히 그 가운데 과학 기자들도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작업이 네덜란드 사회에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학주의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네덜란드에서, 10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세속화된 네덜란드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René: 우리는 책과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과학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신봉하지는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나 이성을 통해 형성된 믿음 외에도 다른 자원을 통한 지식이나 믿음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애씁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한 번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어떤 심리학자와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두통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군요. 다른 예를 들었어요. “나는 내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심리학자가 대답하더군요. “내 친구는 부러진 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리가 부러져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과학주의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연구 저널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주의 바탕에 있는 사상을 들추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더 쉬운 말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

니다. 동료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그리 애써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주의가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심리학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과학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지요.

강: 그 일이 카이퍼 센터의 주된 업무이고 기독교 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로서 주로 하시는 일이군요.

René: 네. 현재 20여 명이 참여하여, 앞에서 얘기한 네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에서는 테렌스 쿠네오(Terrance Cuneo)와 라스 샤퍼 란다우(Russ Shafer-Landau)라는 두 도덕 철학자가 합류해 있습니다. 이들은 『진화와 도덕성(Evolution and Morality)』이란 책을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빌름 반 오펜(Willem van Otten)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늦은 나이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소설가 겸 에세이 작가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학작품으로 써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학문적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언론사에서 주는 상을 받은 책도 있습니다. 릭 빼일스(Rik Peels)가 쓴 『신을 증명하다(God bewijzen)』라는 책인데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4쇄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연구가 대중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 : 언론과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빼일스의 책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René :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사실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프로젝트에 탁월한 신학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기독교 교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과학주의와 과학의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시(詩)와 기차 시간표가 다르듯이 성경과 과학은 전혀 다르다고 말이지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강 : 신학자들은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지요. 진리의 한 종류로, 혹은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 놓고 과학과 타협하는 신학을 하는 것이지요.

René : 그것은 마치 과학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친구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아무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계는 오히려 이것이 신학을 오히려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과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과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하지만 그것을 신봉하지는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나 이성을 통해 형성된 믿음 외에도 다른 자원을 통한 지식이나 믿음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애씁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강: 그러면 신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도 개념과 주장, 이론을 다루고 있고 지적 체계와 관여하는 활동인데요.

René: 나도 궁금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 텍스트의 언어적 연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본문, 희랍어 본문에서 이것저것을 찾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학문적으로는 존중받을 만하지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역사신학자들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교회사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지만 역사학자로 그러할 뿐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시켜 보지는 않아요.

강: 신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모두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적 작업에 참여하던 시대와 문화에 대항하든, 함께 하든 시대와 문화를 의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 신학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René: 물론 헤이스베르트 반 드 브링크(Gijsbert van de Brink)나 게이스 반 드 쾰이(Cornelis van de Kooi) 같은 예외적 인물도 있지요. 그러나 주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할 뿐 교회를 시대와 문화 속에 함께 있는 유기체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언급한 수많은 주제들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신학자들이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강: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신학적 태도의 기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계몽의 문화일까요? 계몽주의가 하나의 지배적 문화가 된 뒤로 신학자들은 사회 속에서 공적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좁은 시각으로 교회에 한정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다보니 그들이 속한 사회의 대중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교인들이 들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René: 학계의 많은 신학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학 활동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 언어와 교회 역사 연구에는 몰두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교리나 교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작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조직 신학이나 교의학은 마치 ‘진리’와 무관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신학자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인가,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제가 참인가, 라고 물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참과 거짓과 무슨 관계있냐는 듯이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하는가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강: 이미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참과 거짓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가치는 유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치의 문제이기보다는 무엇보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과 무관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단지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됩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고백이 곧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며, 따라서 여기서 사실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René: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공적 공간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문제되는 것을 우리는 공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며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화는 더욱 빈곤해지고 메마를 것입니다.

강: 네덜란드 교회에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추세입니까?

René: 아니, 조금씩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나 성도들의 숫자는 하향세이기는 하지만, 교회 내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영적 세계에 관심을 보이며 매일 기도하는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니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신대와 한동대, 그리고 서강대에서 좋았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학문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가 이질적으로 되어 버린 네덜란드에서는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 와서 제약 없이 말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 네, 마지막 말씀을 한국 방문의 소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영안 교수의 심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

WORLDVIEW SPECTATL

정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기독교 안에 팽배해진 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무지에 가려진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나자.

그렇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
누가 먼저 알아야 할까?



신학적 빈곤의
파악과
“한국적 신학”의 시도

“빈곤”(貧困)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그것이 어떤 영역-경제, 문화, 신학-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학적 빈곤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적 성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학적 빈곤”이란 무엇인가?

“신학적 빈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의자들 사이에 콘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려면, “신학적”이라는 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신학적”은 “신학에 관한/관계되는”의 의미이므로, 결국 이 논의는 “신학”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신학”(theology)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이것은 조직 신학의 연구 분야(locus) 중 첫 번째인 “신론”(doctrine of God)을 말한다.¹⁾ 이러한 “신론”은 다른 분야-“인간론”, “기독교론”, “교회론” 등-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론 자체(theology proper)²⁾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둘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개별 과목이나 그런 과목들의 총칭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는 주경 신학(Exegetical Theology), 역사 신학(Historical Theology),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 실천 신학(Practical Theology)의 네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³⁾ 이런 의미의 신학에 어떤 (및 몇 가지) 분야가 포함되는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⁴⁾

셋째,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어떤 특정 이슈나 사안, 주제를 성찰하는 일로 이해된다.⁵⁾ 이런 용례의 신학은 “신학”

앞에 성찰 대상의 이름(명칭)이 붙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언약 신학,” “해방 신학,” “생태 신학,” “십자가 신학”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신학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신학의 빈곤이 이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의미에서 신학적 빈곤이란, 조직 신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신론”의 연구가 빈약하다는 평가로 귀착되는데 이는 한국의 현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현재 한국에는 개신교만 50여 곳의 신학 기관이 있고 신학교마다 각종 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방면에서도 신학적 빈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 방면의 신학적 빈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자 한국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나라/민족/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우리 특유의 (그리고 우리만의) 상황, 문제점, 현실을 겪고 있다. 마땅히 이런 사안에 대한 신학적 성찰⁶⁾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해결을 겨냥한 어떤 몸짓도 쉽사리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신학적 빈곤의 모습을 가능한 한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리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MF),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오늘날 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

오늘날 “한국적 신학”이 필요한 것은 일반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새로운 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i) 과거와 달리 의식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 (ii) 이 의식이 과거에 없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발현시킨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성숙을 꾀하려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작업이 다급하다.

(1) 새로운 의식의 발전과 세 가지 형성 요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의식 체계와 구조가 1970-80년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절감하고 인정하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지난 30~40년 동안 우리의 성(性) 의식·기독교 인식·재물관·공동체 개념·자녀에 대한 기대치·생명에 대한 관점·직장의 선택 기준·권위관·통일의 염원 등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실상을 뭉뚱그려 “새로운 의식의 발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서로 다른-그러나 종종 함께 맞물려 있고 중첩적으로 작용하는-형성 요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한국인과 그리스도인의 심성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무교적 성향이 깔려 있다. 샤머니즘(shamanism) 혹은 무교(巫敎)라 불리는 종교적 습속(習俗)에는 피화기복(被禍祈福)의 방침, 신적 대상을 달랠으로써 조종하려는 욕구, 신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서의 샤만에 대한 이해, 제의(祭儀)/의식 위주의 종교 생활 등이 포함된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종교 활동이나 생활 습관으로부터 무교적 성향을 배웠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세대 속에 혼합주의적으로 잠입한 무교적 특징이나 면모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교적 편향성을 배태하게 된다.

둘째, 한국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 때문에 전환기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공동주의(communitarianism)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 교류, 여행, 거주지의 변동, 매체의 유입 등 다양한 수단에 힘입어 점차 서구적 개인주의에 물들기 시작했다. 특히 88올림픽을 치르며 전환의 현상이 뚜렷해졌고, 그 후 젊은이 세대를 필두로 하여 “표현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⁷⁾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개인주의적 경향은 무엇보다도 자아의 인식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성에 대한 태도, 여가와 향락 추구, 돈의 사용이나 시간 관리 등의 사안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 한국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정·학교·교회·직장 등)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관계는 정말 놀랄 만한 변화를 겪었다. 가족의 개념, 부부 사이의 역할, 부모-자녀 사이의 책임 등은 종래의 공동주의적 관점을 탈피하여 급속히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향하기 시작했다. 가치관의 극명한 변화를 이 정도로 선명하게 의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이 겪고 있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 때문에 불안과 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불안과 긴장의 상태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구성원들 사이의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점점 더 악

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실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민족 전체가 끌어안은 사회적 통합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지역감정의 상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치유되고 안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상태이다.

우리 민족의 고통이자 동시에 국제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이다. 남북의 분단 및 대치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적 비극과 아픔을 연출하고 있다. 남북통일을 민족의 과제로 당연시하는 고령의 세대든 통일 비용을 따지며 머뭇거리는 젊은 세대든, 한국인에게 분단의 현실은 특유의 집단적 신경증(collective neurosis)을 유발해 왔다. 통일 전략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의견의 양극화 현상이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난관은 경제 문제이다.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인들의 경제 관념과 소유 의식은 병적이라고 할 정도의 강박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을 강타한 2008년 금융 사태 또한 전(全) 지구적 연쇄 파동의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 한국인들과 한국 교회는 이렇게 고질적인 국내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세계적 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식에 노출되어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결과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형성 요인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의식”)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과 교회의 생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까? 한 가지 씩 살펴보자.

첫째, 무교적 성향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공산이 크다. 기복(祈福) 신앙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여러 형태-헌금·헌신·교회 봉사 등

과 연관된 동기 문제, 기도 응답·하나님과의 교제·상급관에 있어서의 오페나 왜곡 등-로 둔갑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 비슷한 대칭 현상으로 “가계의 저주”⁸⁾식 형벌관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크고 작은 재난이나 역경을 잡신(雜神)들의 괴팍한 보복 행위-이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무교적 패러디와 편견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로 간주하는 것⁹⁾이다. 꿈·“계시”·입신·신유에 대한 강박적 집착, 교회당·목사에 대한 구약식 이해 [성전·제사장], 영성에 대한 반(反) 지성적 접근 등도 무교적 성향의 직·간접적 표출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 신학적 성찰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개인주의적 관점/시각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사안이라서 자아, 가정, 교회의 영역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자아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릇된 자아관의 문제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활동/현상/사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다. 오늘날 자아관의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라는 것-자아를 죄의 부패성과 분리시킨 채 그 잠재력과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과거 비관주의적/금욕주의적 자아관도 문제였지만, 오늘날의 낙관주의적 자아관도 과거의 오류 못지않게 비틀어져 있다. 이것이 불건전한 쾌락과 짝을 지어 온갖 쾌락주의-음식 쾌락주의, 문화 쾌락주의, 성 쾌락주의 등-을 낳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성의 영역만 하더라도 인터넷 성중독, 혼전 성행위, 동거 등이 일상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부각되는 사안 중에 “권위”의 문제가 있다. 과거 공동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던 시절에는 대체로 권위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당연히 수장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풍조를 따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종래의 우두머리들을 전과 같은 순종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목회자-교우 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

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에 대한 재정적 기여(cf. 딤편 5:8)는 어디까지인가? 부모 역시 과거 처럼 자녀를 속박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영역에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자녀에 대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 부부 중 반드시 남편에게만 권위가 있는 걸까? 남편이 재정이나 지력 혹은 사회적 지위 등이 열등한 경우에도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분란이 적지 않다.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교우들이 개별적 개인주의나 가족적 개인주의에 치우치면서 점차 교회 활동이나 교회에 대한 봉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회 활동 참여 및 봉사 이외에 재정적 헌납 면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 정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때문에 생긴 이 많은 문제들이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신학의 빈곤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하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한국인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위화감과 양극화 현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의 지속적 해소 방안, 사회적 소외층-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에 대한 개인적·구조적 배려, 심리적·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조치 등은 계속해서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남북통일은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성찰 대상이어야 한다.¹⁰⁾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다양한 모델/패턴 연구,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과 대처 방안, 통일 이후의 사회적 화합을 위한 조치 등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담론에 연결되는 정치적·외교적·군사적·안보적 차원의 의제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특히 개인의 경제 의식과 재물관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 노후 대책의 마련, 재테크, 부동산 투매(投賣), 주식과 증권 등의 주제/사안에 대해서도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적 신학을 실행하는 길

필자가 “한국적 신학”이라고 언급한 신학적 성찰 작업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70년대에는 “토착화 신학”¹¹⁾이라는 명칭 아래 신학적 시도가 있었고, 또 1980년대에는 “민중 신학”¹²⁾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적 신학을 모색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신학자들이 대체로 급진적 신학의 기수들이었고, 한국 교회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그저 특정 지도자들의 창의적 발상이나 시대 친화적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사라졌다.

그렇다고 현재 필자에게 한국적 신학을 실행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할당치 않은 방침을 취함으로써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수주의적/복음주의적 신학의 바탕 위에서 분석·평가하고, 공동체의 상황이나 시대적 적실성을 지닌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들을 찾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교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앙¹⁴⁾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개인주의·개체성·공동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연관시키며,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과 연관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앙적 회복,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세상의 공공 분야를 하나님 나라 및 선교적 신학(missional theology)¹⁵⁾의 관점에 비추어 조망하여 대처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은 신학 분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 분야-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문학, 철학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특히 그런 전공 분야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한국적 신학을 수행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첫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자. 그래야 이런 방면에서 신학적 빈곤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1) Louis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reprint), p. 75.
 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Introduc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p. 32.
 3) Friedrich Schleiermacher, *Brief Outline on the Study of Theology*, trans. Terrence N. Tice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6), p. 20.
 4) 어떤 이는 (i)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ii) 역사 신학, (iii) 조직 신학, (iv) 도덕 신학(Moral Theology) 혹은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v) 실천 혹은 응용 신학(Practical or Applied Theology)을 거론하는가 하면 (Albert L. Truesdal, Jr., "Theology,"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ed. Richard S. Taylor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p. 520), 또 어떤 이는 (i) 성경 신학, (ii) 조직 신학, (iii) 역사 신학, (iv) 교의 신학(Dogmatic Theology), (v) 현대 신학(Contemporary Theolog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Paul Enns, *The Moody Handbook of Theology*, rev. and expanded (Chicago: Moody Publishers, 2014), pp. 7-8].
 5) David F. Wells, "Theology," *New Dictionary of Theology*, eds. Sinclair B. Ferguson et al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88), pp. 680-81.
 6)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작업을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할지 논의를 하거나 명칭과 관련하여 구체적 제안을 하거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신학적 노력을 가리켜 잠정적으로나마 "한국적 신학"이라 명하고자 한다.
 7) 이것은 개인주의의 한 갈래인데, 그 내용인즉 각 개인은 개인만의 느낌과 직관이 있어서 이것을 표현할 때 개체성(individuality)이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반대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Robert N.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27, 33-35, 143].
 8) "가계의 저주"는 원래 영미의 오순절파 지도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인데 [Derek Prince, *Blessing or Curse* (Grand Rapids, Michigan, 1990); Marilyn Hickey, *Break the Generation Curse* (Denver, Colorado: Marilyn Hickey Ministries, 1999)]. 오히려 한국에서 호황을 더 누렸던 것 같다 [이윤호, 「가계의 복과 저주 전쟁에서 승리하라」(서울: 베다니출판사, 2001)].
 9) 이와 관련하여, 송인규, "교회에는 왜 여성들이 더 많을까 여성, 남성, 종교성" 한국 교회와 여성, 이덕주 외 지음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및 IVP, 2013), pp. 180-82를 참조하라.
 10)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 성찰과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총신대학 부설 한국교회문제 연구소 편, 「분단 상황과 한국 교회」(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남북 나눔 연구 위원회 편, 「민중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서울: 두란노, 1996); 한화룡,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김선욱 외, 「평화와 반평화」(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3)].
 11) 초기의 예로서,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와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등이 있다.
 12) 대표적인 저술로서, 안병무, 「민중 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가 있다.
 13) 한국 성서학 연구소 편, 「민중적 신학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2)을 보라.
 14) 서양 신학자의 설명이지만 의미 심장한 내용으로서, 제임스 패커, 정옥배 옮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개정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pp. 51-66을 참조하라.
 15) 이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의 선교 신학에 영감을 얻어 발전시킨 개념인데, 호시가 된 책으로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가 있다.

기독교성직주의,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최근 몇 개의 대형교회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목회자의 윤리, 교회의 재정 사용, 세습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모두 교회의 세속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세속적인 마케팅 원리 수용, 무리한 건축 등과 관련되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 보니, 성경적 목회자상이 궁극해진다.

김동호 목사도 한국 교회 문제의 핵심을 목회자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많을 것인데, 그중 목사직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핵심적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목사직에 대한 정확한 역할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목사직본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목사의 직이 잘못 부풀려져서 마치 중세 교회와 같이 높아지게 되었고, 필요 이상의 권한과 권력이 주어짐으로 스스로도 타락하고 교회도 부패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둘째, “목회 외에는 어떤 직업도 성직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자기 직업을 세속화하여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이중성을 가져오게 되어 기독교인들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문제는 목회자의 직분만이 성직이라는 ‘성직주의’의 폐해에 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목회자들의 성직주의는 직위의 문제나, 사례를 받는 것이나 무슨 칭호나 공동체에서 한 자리를 얻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크게 보면 목회자들만이 교회를 위해 비전을 제공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의식에 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불가결한 존재라고 느끼고 교회의 모든 책임자이자 머리되신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교회를 운영하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1. 목회자 직분은 성직인가?

성경은 목회자 직분만 성스럽고 세상의 다른 직업은 다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뿐더러 어떤 직업이 높고, 어떤 직업은 낮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민족, 신분, 시간, 장소, 사역 등의 차이가 없다. 성경은 목회자뿐 아니라 크리스천 모두가 제사장이요 성직자라고 가르친다(벧전 2:9). 만인제사장론과 교회 지체론이 이를 말해준다.

(1) 만인제사장: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였다.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히 7:27)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제사를 드림과 아울러 자신을 흠 없는 속죄제물로 드렸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참고, 출 19:5-6)



김의원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수료한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구약신학 석사(Th.M.)를, 뉴욕대학교에서 고대 근동어과 히브리어 전공(현 히브리어와 유대학과) 철학박사(Ph.D.)를 취득하였다. 이후 뉴욕중부교회를 설립 및 담임하였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제2대 총장으로 섬겼으며,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자 구약교수로 섬겼다.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이자 새생명교육공익재단 이사장, 동탄사랑나눔재단 이사장, 한미문화협회 이사장, 아태아지도자개발연합(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원장이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두 가지 면에서 신약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첫째,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 중보자가 없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서로를 위한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를 대변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루터는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자신이 이미 사제, 주교 또는 교황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이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이며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음을 확신하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2) 지체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교제’ 등 여러 용어로 말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의 지체”(몸)이라는 것이다. 지체로서의 교회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임재로 활력을 얻고 생동하는 백성을 말한다. 모든 신자들이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지체로서 목회자나 평신도는 기능상의 차이는 있어도 권위적 차이나 신분의 차이는 없다. 모두 한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에 근거한 한국 사회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지체로서의 직분들이 제도화되고 피라미드형의 권력구조와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교회사역은 목회 전문가들의 사역이 되고 평신도 교인들은 구경꾼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 중심의 교회를 말한다. 각 지체 사이에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없다. 다만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와 사역은 소수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의 표현이다. 백성들은 배우이며 예배지도자는 연출가이며 하나님은 관객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사역자들이다.



● ●
그리스·로마 시대의 행정제도에는
두 계층이 있었다. 한 계층은 시정 책임자인
'클레로스'(kleros) 곧 행정관들이고,
다른 계층은 피통치계급인 '라오스'(laos),
곧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었다.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자는
성직자(clergy)를, 후자는 평신도(layperson)
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 ●

2.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

둘 사이의 구분은 교회가 세상의 지도 체제를 모방하면서 세속화된 결과이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행정제도에는 두 계층이 있었다. 한 계층은 시정 책임자인 '클레로스'(kleros) 곧 행정관들이고, 다른 계층은 피통치계급인 '라오스'(laos), 곧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었다.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자는 성직자(clergy)를, 후자는 평신도(layperson)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하나님 백성 곧 '라오스'로 표기하였다. 이 단어는 영예로운 단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laos)”(벧전 2:9)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특권이 교회 전체에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적 지도 체제를 신약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경건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은 이류 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전락하였다. 더욱 성례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 성례를 집행하고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계층' 즉 평신도 층이 형성되었다.

3. 목사직에 대한 성경적 정의

(1) 용어: 한글 성경에 ‘목사’(pastor)란 용어는 에베소서 4:11에 한 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더불어 사용되었다. ‘목사’의 문자적 의미는 ‘양을 치는 목자’란 뜻이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었다.

(2) 역할: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를 세우고 은사를 주신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katartismos)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엡 4:12)는 데에 있다. 여기서 목사의 주된 기능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란 용어는 도덕적 의미에서 온전함이 아니라 ‘무장시키다’(RSV), ‘(훈련시켜) 온전케 하여 (성도의 역할을 하게 한다)’(KJV), ‘준비시키다’(NIV)의 의미를 갖는다.

‘구비시킴’의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는 명사로서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섬기는 일이나 행동을 위해 준비시키거나 유능하게 함”이다. 이 용어에는 고대 헬라어의 의학 역사가 담겨 있다. 구비시킨다는 것은 몸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건강하도록 뼈나 마디마디마다 또 부분 부분마다 잘 맞추는 것, 탈구한 수족을 교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비(무장)하다’의 동사 ‘카타르티조’(katartizo)는 성경에서 13번 사용되었고, “질서를 잡다, 회복하다, 준비하다” 또는 “나아갈 길을 지적해 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를 구비(무장)시킨다는 말은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그들의 성품을 형성시킨다는 뜻이다.

(3) 구비시키는 은사: 성경은 구비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말한다(엡 4:12).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란 성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소명)에 따라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곧 목회자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는 임무를 맡았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항상 목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양이나 목회를 구경하는 청중과 같은 피동적인 역할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곧 목회자의 은사는 교인들의 은사를 발굴하여 빛나게 해주는 기능을 해야 하며,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작은 목자들로 성숙시키는데 있다. 이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만인제사장직의 원리가 온전하게 구현되는 것이다.

(4) 요약: 사도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으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목사들은 지역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였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교회에서 그들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즉,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자신의 은사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자 제임스 패커 | 역자 정옥배 | IVP | 22,000원(양장본) | 14,000원

원제 | Knowing God

이 책은 신학과 삶을 통합한 신학자로 유명한 패커의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다. 이 책이 그토록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저자가 발코니에 앉아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자로서 이 책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 패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성경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아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준엄함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충족성을 기뻐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한 책이다.



교회탐구포럼 시리즈

저자 송인규 외 | IVP | 총 4권

- 교회탐구포럼 1.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 정주채, 배종석, 송인규, 정재영 지음
- 교회탐구포럼 2. 한국교회와 여성(2013년 3월) | 이덕주, 이정숙, 송인규 지음
- 교회탐구포럼 3.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 방선기, 임성빈, 송인규 지음
- 교회탐구포럼 4. 교회의 성, 잠금 해제?: 기독 청년들의 성 의식과 경험 보고서 | 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지음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는 지난 120년 동안 초기의 민족적 수난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민족과 함께 고난 받으며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비난을 받으며 쇠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 개혁을 위해 한국교회탐구센터(The Research Center for the Korean Churches)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한 탐구'를 모토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답습해 왔지만 성서적·신학적·역사적 기반은 모호한 한국 교회의 관행과 면모들을 밝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진지하게 탐구한다.



SICA

2015년 신입생 **현재 모집중**

SICA의 교육 철학

-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 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으로 가르칩니다.
-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에 기초 Bible-based Education하여 가르칩니다.
- SICA는 기독교 세계관 Christian Worldview으로 가르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수시 및 정시 입학

- 유치원 과정 Primary Stage / 초등 과정 Grammar Stage / 중등 과정 Logic Stage
- 2010년생부터 입학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sicaseoul.org

주소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
문의: 02.557.7710 | sicacademy@dcty.co.kr

WORLDVIEW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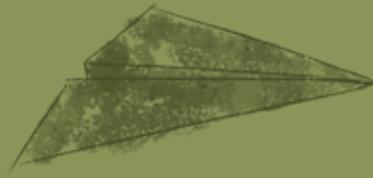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최초의 감각, 최후의 감각

청년연단

교회에 대한 복종과 저항 사이에 선 청년들



최초의 감각, 최후의 감각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태아의 상태를 알아보는 태아안녕검사 중이다.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심박동수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단잠에 빠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검사를 위해서 깨워야 한다. 현재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태아만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주파수를 들려준다. 초음파 진동소리에 깨어난 태아는 힘찬 움직임과 함께 심박동수가 증가하며 자신의 존재함을 알린다.

사람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으며, 또 귀는 듣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할까?

놀랍게도 사람의 귀는 수정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생기기 시작한다.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는 귀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전진하다가 중앙에서 만나 연결되고, 제8번 뇌신경인 청신경과 혈관 등이 분포하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된다. 태아의 내이는 16주부터 완성되기 시작하여 20주(임신 5개월)가 되면 외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태아의 청각 발달은 엄마의 신체 내부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쿵닥쿵닥 하는 엄마의 심장소리, 꾸르르 하는 엄마의 배에서 나는 소리,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저음의 아빠 목소리.

이러한 소리들은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여 뇌 발달을 자극하고 돕는다. 이처럼 청각의 발달은 뇌 발달을 유도하는데, 특히 이 시기의 청각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적절한 '소리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태아는 소리에도 반응하지만, 소리 속에 담긴 사랑이나 분노의 감정, 즉 '의미'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소리와 의미를 전달받는데 따라 태아의 청각은 물론 뇌와 감정의 발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귀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게 하며, 전후좌우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서 있거나 걸을 때에 몸이 일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귀가 청각과 균형 유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듣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통찰하게 한다.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특히 의미가 포함된 소리일수록 그렇다. 마음이 달혀 있으면 소리는 들더라도 그 의미는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이 편향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들을 수 없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인 귀, 이러한 귀에 균형의 기능을 부여하신 창조주의 섭리는 어쩌면 균형 있게 듣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온다. 태아에게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뇌파를 유도하여 뇌의 발달과 분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좋은 소리, 즉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와 의미 있는 속삭임이 태아의 몸과 정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태아는 듣고 싶은 것만 들 수 없다. 모든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가장 편안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에 더 집중한다. 다른 소리들은 들리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성인이 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간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의미 속에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못한 채, 듣지 않아도 될 무의미한 메시지를 찾아 헤매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따라 듣는 것도 달라진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영적 상태의 한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어린아이인 태아는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우리도 궁극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삶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의 오감 중 가장 먼저 완성되어 그 기능을 시작하는 것이 귀, 바로 '듣는 것'이다. 사람의 감각 중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듣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된 감각인 청각은 우리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최후의 감각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도 특별한 부분에 손상이 없는 한은 모두 들 수 있다. 다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착각할 뿐이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찬송가나 설교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감각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최초 감각이자 최후의 감각인 청각.
20주경의 태아 때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
소리와 균형의 조화로 이루어진 기관, 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 🍷

교회에 대한 복종과 저항 사이에 선 청년들

몇 주 전, 출석 교회 담임목사님의 재신임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새로 분리된 교회에 부임한 지 7년 된 담임목사님을 성도들이 판단하는 자리였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교회의 설립취지와 성경적 민주주의 실천에 부합한다 하여 투표가 진행되었고 담임목사님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얻었다. 목사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고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성도들의 투표로 담임목사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표 절차를 두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방이 뚫린 예비당에 앉아 투표지에 가부(可否)를 표시하는 것은 비밀투표에 어긋나며, 투표용지를 후보와 함께 나누어 준 것은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항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한 청년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교회 측에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리곤 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고 나온 청년들이 많다. 또한 그들은 리더나 청년부 회장 등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청년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긋나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고, 교회는 이들로 인해 건강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 청년들이 과거 몸담았거나 거쳐 온 교회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교회들부터 동네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바른 신앙을 전하지도, 올바른 목회를 하지도 못했다고 말한다. 기독교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수백 억을 들여 호텔처럼 만든 교회도 있고, 담임목사의 성적, 도덕적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 교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교회들도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성도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기복신앙에 근거한 설교로 많은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다른 교회에도 등록하지 못한 채 아예 넌크리스천(non christian)이 되거나 가나안 성도(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혹은 예수는 믿



아름다운 기독교성을 소개합니다!

청년 이관형

국민대 언론학과에 입학하여 당해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높은뜻 정의교회에 출석중이다. 도서출판 두날개, 월간 현대종교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본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산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2기 수료생이기도 하다. 현재는 경기대학원 전자출판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성도)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는 침몰중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그들은 교회학교에서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고 비판 없이 설교를 맹신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렇게 성인이 된 청년들은 교회의 불의나 뿌리 깊은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법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앞을 보지도, 선인지 악인지 분간조차도 할 수 없다. 그저 목자의 지팡이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다.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적어도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법을 안다. 최류탄을 맞고 여기 저기 끌려다니며 피를 흘리면서도 잘못된 위정자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다. 총과 칼로 무장한 잘못된 군부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힘과 직분의 권위로 무장한 잘못된 목회자이다. 군부세력이 폭력으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억압했다면 일부 목회자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권위를 통해 청년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순종에 내재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정신’에 대한 의지마저 꺾고 만다. 청년들의 비판 및 저항의식을 일찍부터 차단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된 것처럼, 분명 한국 교회도 바른 길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맹신과 복종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서의 저항이 필수적이다. 목회자들의 회개, 장로들의 깨어남, 집사들의 헌신 뿐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이 말씀으로 도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청년연단’은 기독교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교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서평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잃은 양인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가나안 성도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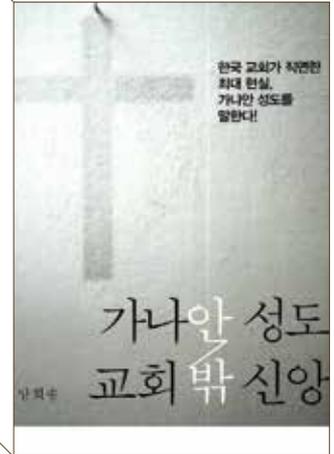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은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는 이 개념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조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교회 안 나간다 하기도 그렇고 거짓말하기도 그래서 가나안교회 다닌다고 한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대적인 현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꼭 짚어 이야기한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이들을 지칭하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 이 좋은 이름을 굳이 이렇게 써야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가나안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신다는 분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재치 있는 기독교식 이름 붙이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시대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저자는 이것을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서구 교회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권 교회, 조직에 대한 반발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영성이 존재해 왔으며, 소속 없는 신앙, 교회 밖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이를 묘사해 왔다'고 덧붙인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킬대학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 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가나안 성도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권 교회에서의 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를 벗어났지만, 신앙마저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100만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약 10%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만 그리스도인의 10%인 1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10%는 제도권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맞으나 그 이탈이 의식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의식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앙적 열정을 잃고 바쁘거나 게을러서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까지도 가나안 성도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가나안의 주일

그러면 교회를 벗어난 이들의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 이 책은 먼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밝힌다. 주일 아침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나를 가졌던 '가나안 예배'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 대목은 가나안을 남발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도 놀란 기독교 단체 증견 책임자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모태 신앙인 그는 성실하게 교회에서 성장했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더구나 꽤 오랫동안 그 단체의 간사로 섬겼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런 교회에 다닐수록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가치에 끌려다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탈하거나 반대를 선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일 아침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 있는 동안, 혼자 밖으로 나가 도넛과 커피 한 잔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직 교회에 남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가나안 논쟁: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나안 성도를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많아. 우리가 회개하고 변해야지... 그래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성도, 그거 자꾸 정당화하면 안 돼. 조금만 힘들면 교회 밖으로 걷도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이다. 저자는 가나안 성도를 교회소핑족, 교회난민, 영적 엘리트주의자, 영성 소비자 등과 같은 부류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이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진지하다는 것이다.

이중 몇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면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자. 이들은 교회난민인가 이다. 저자는 이들을 교회의 분류로 내쫓긴 자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후부터이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 양인가, 아니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이다. 물론 이것은 책의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나 저술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성도는 현재 조직화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버거워서 뛰쳐나온,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며 아멘만 이야기하는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들을 결코 불쌍한 존재나, 잃어버린 양 수준이나, 교회를 떠난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측면은 이들이 떠난 이유를 살펴봄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빠지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나안 성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류이다.

저자는 물론 전자이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에 교회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돌아오라고만 한다면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가나안’이 결국 ‘자발적 가나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논쟁을 가진 적이 있다. 가나안 성도들이 스스로를 ‘영적 노숙자’ 또는 ‘영적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떠날 때는 호기 있게 떠났지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때론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거리를 헤매지만 교회에서 자라난 배경이 있기에 고향을 그리워한다. 교회의 교리와 관례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려 하지만 안정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힘들 때도 있다. 끝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포스트모던의 신관을 가져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 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따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그래서 이들이 이 순례의 길을 조금이라도 일찍 마무리하고, 그 순례의 끝에 교회를 다시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다.

가나안 논쟁: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 논점은 교회론이다. 저자는 가나안 현상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나안 성도를 통해 더 풍성하고 깊어진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교회론은 없고, 단지 교회 성장론만 있다고 자성을 촉구한다. 즉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없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에 대한 성장주의만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한다.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케리그마(선포), 레이투르기아(예배), 디다케(교육), 코이노니아(교제), 디아코니아(봉사)의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조직론이 아니라 기능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그런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 영속적으로 유지할 어떤 제도는 아니란 말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에클레시아란 이름을 달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제도란 에클레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만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로 들어온다. 제도의 존속과 치장에 힘쓸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묻는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큰 건물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문제는 교회가 위에서 말한 역할들에서 떠나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는데만 온 힘을 쏟는 경우들이다. 나아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사람이 모일만한 일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면과 닿아 있다. 즉 이렇게 교회됨을 상실한 한국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반신양적 도발’이 아니라 ‘참신앙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도전을 통해 한국 교회가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지적에는 머리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허물어져버

린 교회에 남아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어쩌한가. 과연 한국 교회는 이처럼 부족하고 교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인가.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났다. 영화를 본 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모순덩어리 열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고 두 아이만 살아남아서 눈덮힌 설국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서다. 그래서 과연 그 결말은 옳은가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그들이 투쟁했던 바른 결말인가의 문제이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분명 한국 교회에 던져진 도전이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빚어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세계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현상으로 볼 것인지는 뒤로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만들지 않는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유치원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인용 기독교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소통하고, 생기를 나누어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서평 <창조에서 홍수까지>

성경과 과학의 대화와 그 한계

이 책은 한마디로 창조에서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까지 창세기 1-9장 본문에 대한 “강해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주해서”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창세기 주해”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본문을 주해하면서 신학적인 해석뿐 아니라, 기존 과학 분야의 지식들을 통합하는 과학적인 주해를 시도했다. 즉, 천지창조에 대한 주해에 우주 및 지구의 형성 과정 등에 관한 지질학 혹은 기존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설명했다. 이것은 물리학을 공부한 저자가 오랫동안 창조 과학 운동에 종사하면서 창조에 관한 과학적인 변증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저자는 과학사와 신학을 공부한 후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 본문을 창조 순서, 날짜별로 강해한다. 두 번째 부분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부분으로 창세기 2-9장까지의 내용을 11개의 단락으로 나눠 강해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우주,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러한 우주는 140억 광년의 반경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및 창조론에 관한 신학적 설명뿐 아니라 우주에 관한 과학적 기술로 독자들의 흥미를 끈다. 2절의 혼돈과 공허, 깊은 위에 있는 흑암을 저자는 (신학적 해석과 더불어) 지구가 창조된 순간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



오성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B.S.), 한국과학기술원(M.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영국 Trinity College(Bristol)(Ph.D.)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 마그마 바다를 이룬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6-10절의 궁창과 바다, 육지를 만드는 과정을 해설하면서, 전통적인 “물보이론”(하늘에 큰 물보가 있어 물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부정하고 궁창 위의 물이란 물 순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바다와 육지가 나뉘는 과정은 펄펄 끓는 마그마가 식은 후 지각의 판들이 형성되어 움직이는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이라고 본다. 그 후 식물들이 땅 위에 종류대로 나타나게 된다.

첫 3일 동안 하나님은 생명체를 위한 무대, 즉 빛과 어둠, 물과 궁창,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어지는 3일은 그 무대를 채울 존재들, 즉 일월성신, 어류와 조류, 육지동물과 사람을 차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해석의 난제 중 하나가 “날”의 개념이다. 태양력의 하루로 볼 것인가 혹은 어떤 (긴) 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짧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저자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주해에 있어서도 홍수, 즉 유량의 증가 원인이나 방주의 이동 등에 관해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또한 저자는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세기 1-11장 기원 역사의 여러 해석적 난제들에 관해 과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학적 주해들은 자연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와 지구의 기원에 관한 창세기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유익한 예화와 경건적 통찰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 특히 말씀 주해 후 각 장마다 말씀의 요점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매우 유익한 신앙적 도전을 던진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일반 평신도들과 특히 과학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세계관적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한편 그들의 경건에도 유익한 책이라고 평가된다.

성경과 과학을 통합하려는 그의 시도는 매우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성경과 과학의 대화를 도모하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취하는 관점은 몇 가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14, 49쪽). 이 명제는 저자가 성경과 과학 간의 대화와 통합을 시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생각을 표현한다.

“성경의 문장이나 표현으로부터 구체적인 과학적 결론을 유추하려는 시도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의 목적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111쪽) “성경은 지질학 교과서가 아니며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일에 주된 관심을 두고 기록된 책이므로 성경을 지질학적 자료집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75쪽)

이는 성경은 단지 구원을 위해 주어진 책이므로 어떤 과학적인 묘사에 대한 진술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이 더 권위가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우리는 성경과 과학의 역할과 권위를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는 말은 당연한 말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인 (모든) 진술들은 오류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면 그 표현은 지나친 것이 된다. 과학적인 진술은 (무엇이든지) 과학이 말해야 하고, 과학이 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은 옳지 않다. 성경은 (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진실한 책이다. 다만 일상의 언어로 이해되도록 쓰인 것뿐이다. 물론 성경이 과학이라는 학문의 내용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는, 성경과 과학의 영역 문제이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는 권위의 문제뿐 아니라 영역의 문제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보통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과학이란 실

험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한다. 실험과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학자들의 말이라도 과학이 아니다.

“성경은 빛의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는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음을 의미한다.”(84쪽)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이 무엇이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빛의 창조 과정”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창조”의 “과정”도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경험적인 과학의 원리를 “창조”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조는 반복 가능하고 경험 가능하고 실험과 검증이 가능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만일 과학자가 “창조 과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요 철학일 뿐이다. 저자는 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인가, 46억 년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113-114쪽)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성경과 과학의 영역 문제에 대한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창세기로부터 출발해 새로운 과학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자칫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삼류 과학을 만들 수 있지만, 과학으로부터 출발해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잠정성을 전제하는 한 유익을 줄 수 있다.”(14쪽)고 본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경을 터무니없이 부조리한 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주에 관한 참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셋째, 저자의 신학에 관한 문제이다. 저자는 복음주의 성경관에 기초하여 저술하였다고 고백한다. 그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저자 자신이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을 신봉한다고 고백하고 있는(16쪽) 것처럼, 대체로 성경적이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에 관한 저자의 신학적 주해는 대체적으로 건전하며 유익하다. 그러나 창조론에 관한 그의 신학은 설익은 듯한 느낌을 준다. 과거에 신봉하던 젊은 지구론을 버리고 오랜 지구론을 주창하고 있는 저자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휘튼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존 왈튼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15쪽).

저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한다(45-46쪽). 그는 창조과학자 모리스의 견해를 추종하여 1절의 천지 즉 하늘과 땅의 창조가 공간과 물질의 창조라고 이해한다(47쪽). 그러나 그는 2절의 “(그) 땅”이 1절의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서도, 지구의 땅으로 본다(64쪽). 그러면서 “1절을 독립된 창조사역으로 보는 것도 1절과 2절이 접속사로 연결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 1절이 독립된 창조 사역이 아니라면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한편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긍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빅뱅 이론과 창세기 1장의 조화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언급한다. “그러면 성경은 빅뱅을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빅뱅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빅뱅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빅뱅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64쪽)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실상 빅뱅을 긍정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는 2절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지구가 막 창조되던 시절,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이 충돌하면서 지구는 연속적인 대격변을 겪었다.”(71쪽)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1절이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1절의 땅이 지구의 땅을 의미한다면, 그가 말하는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은 언제 생긴 것인가? 결국에 그는 지질학 혹은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지구의 탄생 과정이 2절(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서 지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이 어간다.

저자의 신학이 아직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자는 창조론자이다. 그는 창조론을 신봉한다고 고백한다(150쪽). 저자는 창조 주간의 사역에서 반복되는 어구 중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체가 종류별로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라면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하등생물이 세월이 지나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저자는 진화를 반박하는 증거들로 중간 형태 화석의 부재, 부모에게 없는 형질은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멘델의 유전 법칙, 식물의 품종개량의 한계 등을 든다. 모든 창조주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마음에서 발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닮은꼴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을 부여받은 청지기로 사명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넷째, 연대기에 관해서이다. 저자는 “성경에서 현대 과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16쪽) 그가 말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이란 지구의 연대를 6천 년으로 해석하는 아일랜드 교회의 어서 대주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라이트 뜻을 말하는 것 같다(113쪽).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의 나이의 단순한 산술적 합산이 지구의 나이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저자는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과 더불어 살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지나친 문자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낳고”는 (아들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자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근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주전 4000년 전 창조 이론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학문적 성격이다. 전문 주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 주해에서 가끔 세밀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두루뭇술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시간 내적인 존재요, 시간에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곧 시간임’을 의미한다.”(40쪽),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한 메시지로 준 성경에서 ‘현대 과학

적 의미’를 찾으려고 집착하는 것은 그 열정은 높이 살 만하지만 성경을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52쪽)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를 바탕으로 저술된 책임을 고려할 때 납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는 점은 저자의 문체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성경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의 일단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성경은 최고의 과학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주장이지만, 신학자들은 이것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성경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49쪽)고 기록하면서 그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창세기 1-11장의 원시 역사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세계관 형성뿐 아니라 신학의 기초를 놓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본서는 둘 사이를 통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출발점이자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때때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과도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것은 과학이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와 과학적인 면에서 좀 더 충분한 연구와 대화가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이루어질 때 우주와 지구의 기원에 대해 바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미친 사람이 한국 교회의 미래

◎ 조성표 (전임 실행위원장, 경북대 교수)

지난 2년간, 부족한 제가 실행위원장으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니 많은 분들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학회장으로, 교육본부장으로, 부실행위원장으로, 각 위원회의 장으로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간사들께서 그 거리의 격차를 훌륭하게 메워 주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제가 20대일 때,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년이 된 셈이지요. 초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이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배웅하여 드렸는데 따라 나온 우리를 보고, “자네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야. 선진국은 배운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자네들과 같이 젊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성이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밝아!”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이사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힘들고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네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야!”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 최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지난 해 사역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독교문화회 개최, 학술지 신앙과학문의 발행, 월드뷰 발간, 교회에서 영화 상영과 비평, 세계관 콘서트, 세계관 교재 발간…….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듯 사소하여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참으로 유익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하셨구나!’를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몇 백 권정도 팔리는 책이라도, 200명 정도 모이는 학회지만, 월드뷰도 읽는 사람이 얼마 안되어 이런 일들이 보잘 것 없는 일인 듯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어야 해.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 사역을 이끌어 가는 거야.” 그렇기에 우리 동역회에도 미친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동역회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임 실행위원장이신 김태항 교수와 40~50대 실행위원들로 동역회를 이끌어 가는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니 그동안 김승욱 교수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동역회를 붙들고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 만큼, 젊고 의욕이 넘치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역회는 새로운 세대에 미친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총회 말미에 신년 하례사에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 이사장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진리에 미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반열에 든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펴뜩 들었습니다. ‘그렇다! 미쳐야 사도 바울처럼 된다.’

우리 동역회는 임원을 마쳐도 각자 일을 찾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승욱 교수는 가장 어려운 월드뷰를 맡고 있고, 장수영 교수는 대학원생 모임을 평생 하겠노라고 나섰고, 저도 한 쪽지 일을 찾아 계속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에 작더라도 미치면, 나중에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예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데 미친 사람,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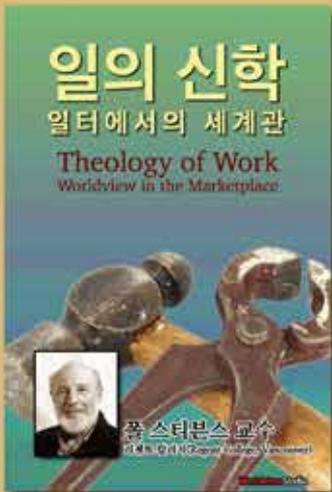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폴 점수 불필요.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교수진 원서마감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 VIEW 입학설명회 ***
 일시 2/10(화) 7시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5층 (합정역 7번출구)
 문의 02-754-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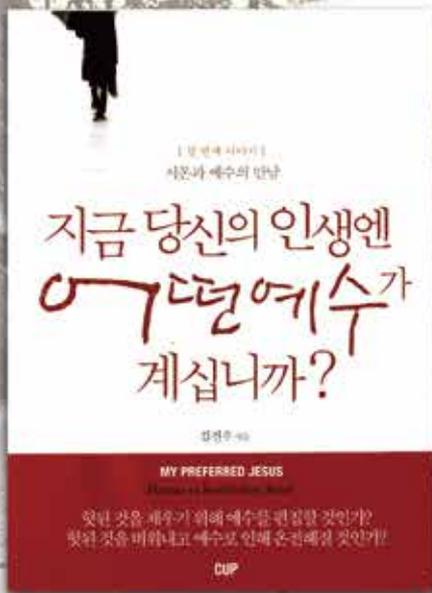
폴 스티븐스 교수의 『일의 신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본 강의는 구입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테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ondemand/wvl101k>





신국번형 208면 | 양장본 | 정가 10,000원

꺾판 같은 예배,
거들먹거리는 교회가 난무하는 시대,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는 책!

| 첫 번째 이야기 |
시몬과 예수의 만남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디엔 예수께서 계십니까?

김진주 지음

MY PREFERRED JESUS
Fiction vs Nonfiction Jesus



www.cupbooks.com | 02)745-7231

worldview **CUP**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780,000		기타급여	910,000
	일반회비	5,060,000		소계	4,310,000
	기관후원금	5,6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520,000		사무실관리비	501,000
	월보구독료	898,000		통신비	413,600
	CTC후원금	100,000		우편료	698,95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261,000
	학술후원금	10,000,000		비품	152,790
				식비	185,800
		복리후생비		958,010	
		회의비		297,3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342,080		
		소계	4,580,530		
기타수입	기타수입	344,691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63,000
	소계	344,691		CTC후원금	328,350
				학술지원금	10,0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출판(회지)	소계	391,350
	자료집판매	15,000		월드뷰구입비	2,000,000
	학술지심사비	140,000		발송비	1,009,250
	학술지게재료	2,562,000		인쇄비	170,000
	학술연구지원비	4,000,000		소계	3,179,250
	소계	6,817,000		기타	세금
소계	24,208,000	소계	26,220		
당월 수입액	31,369,691	당월 지출액	23,076,525		
전월 이월액	27,004,237	차월 이월액	35,297,403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소계	1,600,000
	소계	2,1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90,000	
		인쇄비		2,120,580	
		소계		3,570,58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복리후생비	620,790
	도서판매비	84,000		통신비	110,000
	기타수입	257,599		회계용역비	110,000
	소계	2,591,599		식비	246,18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100,000	기타지출	회의비	47,000
	미디어장학등록	0		소계	1,408,970
	소계	100,000		세금	72,220
				기타	9,300
				소계	81,52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강사로	2,700,000	
			미디어비품구입비	224,700	
			미디어행사준비	1,004,720	
			미디어기타	101,000	
			미디어식비	86,000	
		소계	4,116,420		
당월 수입액	4,791,599	당월 지출액	10,777,490		
전월 이월액	23,219,914	차월 이월액	17,234,023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유훈,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재범,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장원,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화원, 박상희,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은사, 유성욱,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상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은, 김성진,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식, 김재우, 김태운, 김항아,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찬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석,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우,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이영훈, 이윤희, 이인수, 이종희, 이향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박사라 **7천5백** 강찬진, 고상성, 김영환, 김은민, 김효태, 민수진, 박대희, 박현민,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세호, 이원명,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진, 강효식,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정민, 구재환, 구준희, 권민규, 권순범, 김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용, 김기현, 김나경,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욱,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숙, 김영민, 김영호, 김용석, 김우진, 김원호,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경진, 김중국, 김중호, 김진성, 김지아, 김철수, 김관민, 김혁, 김현경, 김형길, 김홍섭, 김홍제, 나동훈, 나윤수, 남서희,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재환,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애란,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해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인교,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희진, 성광원, 소중호, 손한나,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상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원, 신현정, 신현주, 신형호,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심인욱,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지선,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환, 유창은, 유해우, 유익진, 윤명식, 윤성민, 윤선석, 이갑두, 이강, 이경숙, 이계삼,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다은,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상연, 이시영, 이연규, 이연의, 이용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미,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석, 이혜리, 이호선, 이현일, 이희진, 임동진, 임미림, 임영, 임일택, 장경근,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태, 전성규, 정성구,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세준,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희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현,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호영, 주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세기,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배기선, 유익신, 정상섭, 최동원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용관, 김봉래, 김용식, 김은우, 김인숙, 김정호, 노경순, 노용환, 배성민, 백은식, 변우진, 송현미, 양해원, 오한나,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 란, 이명희, 이인아, 임수연, 임지연, 전정원, 조신권, 조창근 **2만5천** 문석윤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백은미, 서성록, 신선영,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전중화,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3만8천5백** 김진호 **4만** 박미하, 백성희 **4만2천** 개명교회 **5만**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이종철, 정은애,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은수, 현은자 **6만** 강진규, 양상만, 조무성,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7만** 이정주 **8만** 권정아 **10만** 김원수, 김의원, 김태환, 박상은, 송인규,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박동현, 차정호 **15만** 손봉호 **40만** 홍숙의 **100만** 김승욱 **500만** 엘비전, 흥명식

계 18,558,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성덕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15만** 마포중앙교회 **20만** 금성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백석정신아카데미, 새로운교회

계 5,650,000원

광고후원금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하우스코리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정기총회에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 11기가 종강하였습니다.

전체 15주간의 마지막 과정인 졸업시사회가 1월 30일(금) 필름포럼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디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군사로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청년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12기 모집은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학회지] <신앙과 학문> 20권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서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20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20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20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 (학회)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세트 판매 실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은 연4회 발행됩니다. 2014년 발행한 <신앙과 학문> 19권(1호~4호)를 세트로 판매합니다. 1세트에 60,000원(택배포함, 권당 15,000원)이며, 이전 발행한 부수도 권별로 판매하오니 문의바랍니다.

- 문의 02-3272-4967 (담당: 김고운 간사)

[소식]

1. VIEW 입학설명회 : 2/10(화) 저녁 7시 100주년기념교회사회봉사관 5층 (합정역 7번 출구)
2. [멘토와 함께하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 2/28(금) 저녁 5시 삼일교회 C관 2층 (숙명여대역 10번 출구)

월담 (越談) 송구영신예배 성구카드 뽑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

카드에 선정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요. 내가 좋아할만한 것들로만, 만약 네 재산을 다 팔아 네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런 문구가 걸리면 어떤 반응일까요? 무당끼 덜 빠진 것입니다

@Ki*** Kim

기독교 색깔을 덧입혔을 뿐 신년운세보기나 다름없지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또 뭘 뽑아 뽑긴. 맘에 드는 거 뽑으면 그거 하나로 또 미신 믿듯 하겠죠.

@강찬*

대체로 윗분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뽑기죠. 내 뜻과 맞는 것이 얻어걸리면 좋고 다른 것이 얻어걸리면 잊어버리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에도 비슷한 것이 있더군요. 로중이라고 매일의 목상할 말씀을 제비 뽑아서 묵상하는.. 이것을 1년치를 모아서 헤른후트 기도서라고 출판합니다. 저도 2015년판을 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성격이 비슷한 듯 다른 듯합니다. 둘다 무조건 배격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수용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변혁시킬 방법을 찾아 수용해야 할까요?

@신석*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다분히 미신적이지만 문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Ki*** Kim

@강** 행위의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목적이 달라 보입니다. 모라비안의 경우 매일 말씀묵상이 목적인 경우이고 말씀 뽑기의 경우, 한해 운세 보듯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말이야 한해 동안 내가 붙들고 묵상할 말씀이라고는 하나 대개 한해의 향방이나 일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모라비안 경우에도 매일 말씀을 뽑으면서 오늘 하루의 운세 점치듯 한다면 역시 문제라고 하겠지요. 허나 묵상집을 내고 하는 걸 보면 매일 먹을 영의 양식을 선택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정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맹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순종한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다만, 말씀카드 단 한 구절을 보고 나에게 뭔가 예언을 주신 듯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해의 시각에 작은 말씀이라도 묵상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5	
2	16	
3	17	
4	18	
8	19	새해, 주님의 평안이 가정과 사역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6	20	
7	21	
8	22	
9	23	
10	24	7시 VIEW 설명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5층, 합정역 7번출구)
11	25	
12	26	
13	27	5시 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C관 2층, 숙명여대역 10번출구)
14	28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 2/10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VIEW 입학 설명회

※ 2/28 5시, 삼일교회 C관 2층 대학원생 모임



세상, 부끄럽게 하기

드라마 속의 악인들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큰 유혹이 있고 아주 사소한 선택이 그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당신들도 나라면 충분히 그렇지 않겠냐고. 충분히, 어쩌면 그럴 만하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드라마는 악인에게, 악한 일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건건 '짐승'이라고.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악역은 그렇게 설득한다. 하지만 큰 이야기 속에 그들은 묻는다. 너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마음먹을 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악인이 내가 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 설령 그 상황이 악한 이들의 짓보다 더한 억압적인 존재, 우리를 손해 보게만 하는 거대한 조직화된 힘이 있어 굴복시킬 지라도 굳이 내가, 나머지 그 악한 자리에 서는 선택을 잘못을 해야하는지 묻는다. 그러지 않을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 '나'는 격과 가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환상과 위로를 주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넘어서, 현실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가혹하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며칠 전 구급차 사고 뉴스가 있었다. 구급차 안에는 심폐소생술로 살린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고 한시가 급한 위급한 상황에 비켜주는 차가 없어 구급차가 방향을 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문제는 사고차량의 보증을 처리해야 한다며 '응급' 차량의 운행을 막은 사건이었다.

언제부터 생명의 무게가 이렇게 허탈해진건가.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가벼운 문제, 나와는 상관없으니 몰라도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걸까. 나의 안위가 타인의 생명보다도 앞서는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것이 되었는데. 남은 외면한 무한자기 애적 이기주의가 인간의 존엄한 생명마저 경홀히 다뤄도 될 사고로 가려버렸다.

본디 우리는 악한 존재다. 본성적으로 악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명 포스트모던이라는 풍조는 악과 선이라는 것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희미하게 가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쉬운 오늘날이다. 생각하는 힘을 잃고 그저 살아가는 오늘은 일상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만 남겨 놓았다. 오늘의 '나'는 최고의 가치며 최선의 존재여서 대접 받아야만 하고 '나'의 모든 행동은 이해될만 하며 나의 어떤 것도 합리화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모두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적어도 인간(人間)으로 격의 무게는 나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 무게들이 세례를 받아 지켜온 가치들이 있다. 적어도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

세상은 오늘도 눈을 가리고 있다. 나외에 남탓으로, 구조의 탓으로 눈을 가린다. 오히려 우리는 남도 보고, 손해도 보는 고어같은 가치를 지키며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남을 살리는, 세상을 쪽팔리게 만드는 선택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지킬 것을 마땅히 지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 생명마저 가벼이 여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시급한 삶의 숙제가 아닐까?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의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지난 주말 시내 제일 장로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주최로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부인들은 집에서 별로 쓰지 않는 것들을 가져왔다.

어떤 부인들은 남편을 데리고 왔다.”



2014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걸어온 길



1/10(금) 1월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성균관대)
 1/15(수)~16(목) 기독교세계관 DEW캠프 학회임원회의(한동대)
 1/21(화) 제1차 이사회(엘티워), 2014년 경기총회(새로운교회 에스하우스)
 1/24(금) 2월호 월드뷰 발행 "살아있다는 것은"



3/27(목) CMCA 홀커밍데이 (베이직커뮤니티교회)
 3/26(수) 4월호 월드뷰 발행 "한국의 세계관"
 3/28(금) 3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성균관대)
 3/31(월) <신앙과 학문> 19권 1호 발행



5/10(토) 교육문화 심포지움 "그리스도인의 세상바로보기"(총신대)
 5/23(금) 제1차 실행위원회의(고신대)
 5/24(토) 2014년 춘계학술대회 "소통, 화해, 공존"(고신대)
 5/27(월) 6월호 월드뷰 발행 "진리로 진리를 소통하라"
 5/30(금) 5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성균관대)



2/7(금) 10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졸업식(필름포럼)
 2/13(목) VIEW 입학설명회(사무국)
 2/22(토) 김승태 감사(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소천
 2/27(목) 임원좌담(법무법인 로고스) 임시이사회(감사 임명: 박문식)
 2/25(화) 3월호 월드뷰 발행 "투명한 재정"
 2/28(금) 2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성균관대)



4/9(수) 클리프드 크리스천 좌담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17(목) 사무국 1층으로 이전
 4/24(목) 교육본부 토크콘서트 "현실참여"(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25(금) 5월호 월드뷰 발행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6/9(월) 김의원 부총장님 퇴임식 (백석대)
 6/24(화)~27(금)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고신대)
 6/26(목) 7월호 월드뷰 발행 "소통, 화해, 공존"
 6/27(금) 6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6/30(월) <신앙과 학문> 19권 2호 발행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원 회원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가입 후, 아래와 같이 후원 회원을 신청해주세요.
2.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정보관리에서 후원 회원으로 등급을 변경해주세요.
 (저널A : 3,500원 저널B : 5,000원 저널C : 7,500원 정회원 : 10,000원 이상)

* 후원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의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지난 주말 시내 제일 장로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주최로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부인들은 집에서 별로 쓰지 않는 것들을 가져왔다.

어떤 부인들은 남편을 데리고 왔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780,000		기타급여	910,000
	일반회비	5,060,000		소계	4,310,000
	기관후원금	5,6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520,000		사무실관리비	501,000
	월보구독료	898,000		통신비	413,600
	CTC후원금	100,000		우편료	698,95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261,000
	학술후원금	10,000,000		비품	152,790
				식비	185,800
		복리후생비		958,010	
		회의비		297,3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342,080		
		소계	4,580,530		
기타수입	기타수입	344,691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63,000
	소계	344,691		CTC후원금	328,350
				학술지원금	10,0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출판(회지)	소계	391,350
	자료집판매	15,000		월드뷰구입비	2,000,000
	학술지심사비	140,000		발송비	1,009,250
	학술지게재료	2,562,000		인쇄비	170,000
	학술연구지원비	4,000,000		소계	3,179,250
	소계	6,817,000		기타	세금
소계	24,208,000	소계	26,220		
당월 수입액	31,369,691	당월 지출액	23,076,525		
전월 이월액	27,004,237	차월 이월액	35,297,403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12월 31일 마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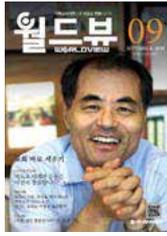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소계	1,600,000	
	소계	2,1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90,000		
		인쇄비		2,120,580		
		소계		3,570,58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복리후생비	620,790	
	도서판매비	84,000		통신비	110,000	
	기타수입	257,599		회계용역비	110,000	
				식비	246,180	
				회의비	47,000	
		소계	1,408,970			
		소계	2,591,599	기타지출	세금	72,220
			기타		9,3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100,000	미디어 아카데미	소계	81,52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강사로	2,700,000	
				미디어비품구입비	224,700	
				미디어행사준비	1,004,720	
				미디어기타	101,000	
				미디어식비	86,000	
		소계	4,116,420			
당월 수입액	4,791,599	당월 지출액	10,777,490			
전월 이월액	23,219,914	차월 이월액	17,234,023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7/7(월) 제2차 이사회(엘티위), 임원실행위원회의(교총회관)
- 7/15(화) VIEW 입학설명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 7/21(월)~2(화) 간사리트릿(라브리)
- 7/24(목) 북콘서트 "창조에서 홍수까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7/25(금) 7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 7/25(금) 8월호 월드뷰 발행 "세계관, 그러니까 삶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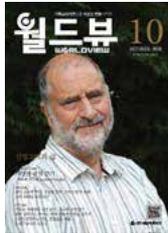
- 9/5(금)~23(수) 대표간사 연수 (캐나다 VIEW)
- 9/19(금) 김승태 장로 기념사업 기금마련 사진전시회 (거룩한빛광성교회)
- 9/26(금) 9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 9/26(금) 10월호 월드뷰 발행 "신앙고백과 삶"
- 9/30(화) <신앙과 학문> 19권 3호 발행



- 11/7(금) 제2차 실행위원회의 (용산 사무국)
- 11/8(토)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 "학자의 삶 속의 선교적 만남" (충신대)
- 11/28(금) 이장호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사선"(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 11/27(목) 12월호 월드뷰 발행 "거짓말"
- 11/28(금) 11월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삼일교회)



- 8/6(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 8/26(화) 9월호 월드뷰 발행 "교회 바로 세우기"
- 8/29(금) 8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 10/18(토) 11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개강(SCA)
- 10/23(목) 토크콘서트 "종교개혁과 오늘"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 10/2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홍보(백석대)
- 10/27(월) 11월호 월드뷰 발행 "아름답다"
- 10/31(금) 토크콘서트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삼일교회)



- 12/27(금) 12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삼일교회)
- 12/28(목) 2015년 1월호 월드뷰 발행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 12/28(주말)-31(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
- 12/31(수) <신앙과 학문> 19권 4호 발행



www.worldview.or.kr 02. 754. 8004

*** 후원 회비 납부 방법**

1. CMS신청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 신청
2.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직접 거래 은행에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3. 계좌입금 :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 카드납부, 연간회비 납부 -> 사무국 문의

*** 사무국 문의** 02) 754-8004 (대표번호)

정회원 가입 시

1. 매월, 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발송
2. 매 분기, 학술 등재지 <신앙과 학문> 발송
3. 석사이상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 자동 등록.
4. 홈페이지의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 칼럼 등을 다운 가능
5. 홈페이지의 학문 분야별 기독교세계관 동영상 강좌 시청 가능
6. 학술 등재지 <신앙과 학문> 에 투고자격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세액공제 15%)을 발급

업계최초 HACCP인증으로 엘타워가 연회의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호텔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업계최초 HACCP 인증까지 받은 엘타워 -
보이지 않는 곳도 보이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품격 높은 연회를 선사합니다.



엘타워, 업계 최초
HACCP 인증!



닛산 / 그랜드홀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홀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홀



인텔 / 매리골드홀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TOWER 엘타워**

예약·문의 02-526-8600 ~ 4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Intelligent
Intuitive
Ingeniously Practical

양심을 다는 정밀계량
오하우스

Ohaus Ranger®7000

- 최대용량 3 kg ~ 35 kg
- 정밀도 0.00005 ~ 0.0005 kg
- 안정화 시간 1초 및 상거래 인증
- 내구성 보장의 IP54 캐스트 메탈 본체
- 견고한 모듈식 설계



Ohaus Adventurer™-AX

- 최대용량 120 g ~ 8,200 g
- 정밀도 0.0001 ~ 0.1 g
-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손쉬운 사용
- 앞면 USB포트 및 공간 절약형 방풍문
- 안정성, 정확성 및 빠른 작동



휴대용pH미터 및 펜미터



Ohaus ST5000

- 0.1/0.01/0.001pH 분해능
- 1000개 메모리
- 100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메모리
- 3엔드포인트 모드
- LCD 터치-스크린

Ohaus 원심분리기 Frontier

- 6500~ 15000 PRM까지의 다양한 모델
- 8 x 1.5/2.0 ml ~ 44 x 1.5/2.0 ml 성능
- 10분에 4°C까지 쿨링되는 강력 냉방시스템
- 탁월한 진동 흡수력
- LCD 터치-스크린 제어 패널
- Made in Germany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824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m>

